

■ 중국 신재생에너지기업, 중동지역 현지기업들과 공동 투자 열풍

○ 중국 Jinko Solar, TCL, Envision Group 등의 3개 신재생에너지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공공투자기금(PIF)의 자회사인 Renewable Energy Localization Company(RELC)와 Vision Industries Company(VI) 등과 협력하여 사우디에 신재생에너지 제품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등의 협력을 추진함.¹⁾

※ PIF는 1971년에 설립된 기금으로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영향력이 있는 기금 중 하나임. RELC는 PIF의 자회사로 현지 재생에너지와 녹색에너지기술·제조 부문 선두 기업임. VI는 2021년에 설립된 기업으로 중동과 세계의 신재생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녹색에너지산업 사업투자과 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급망 현지화를 추진하고 있음.

- Jinko Solar의 자회사인 JinkoSolar Middle East DMCC는 RELC, VI와 주주계약(Shareholders' Agreement)을 체결하고, 약 36억 9,300만 리얄(약 9.8억 달러)를 투자하여 사우디에 10GW급 고효율 배터리와 모듈 생산 프로젝트 건설할 계획임.
 - 합자회사 지분은 JinkoSolar Middle East DMCC가 40%, RELC가 40%, VI가 20%를 각각 보유하며, 프로젝트의 생산 계획은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할 예정임.
 - Jinko Solar는 이번 협력으로 당사의 해외 생산설비가 더욱 확대되고, 해외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 중국의 TCL은 RELC, VI와 합자회사를 설립하여, 약 20억 8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사우디에 연간 20GW의 태양광 실리콘을 생산하는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함.
 - 이는 TCL의 첫 해외 태양광 실리콘 공장으로, TCL 싱가포르 자회사인 LumeTech S.A.PTE.LTD가 이번 계약과 출자를 주도함.
 - 중국의 태양광 기업들 이외에도 풍력기업인 Envision Group도 사우디에 진출하였는데, 향후 PIF, VI와 함께 사우디에 풍력발전 설비 합자회사를 설립하고, 풍력발전기와 핵심부품의 현지화 생산을 추진할 계획임.
- 3개 기업 이외에도 Sungrow와 하이난광업도 중동지역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Sungrow는 사우디 ALGIHAZ와 7.8Gwh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에너지저장프로젝트 건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7월 16일에 밝힘.
 - 동 프로젝트는 사우디 Najran, Madaya, Khamis Mushait 등 3개 지역에 건설되며, 2025년에 모두 계통연계 될 예정임.
 - 하이난광업은 Ajlan&Bros와 MOU를 체결하고 사우디에 리튬염 공장프로젝트 건설 타당성을 공동 모색하고, 리튬자원과 신에너지 금속 광물 위주의 산업기금을 조성할 계획임.

1) 界面新聞, 2024.7.17.